



최철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명예연구원

1963~1970	서울대학교 화학공학(학사)
1974~1976	한국과학원 화학공학(석사)
1978~1982	University of Karlsruhe 고분자(박사)
1970~1971	한국비료(주) 현재 삼성정밀화학 사원
1971~1978	KIST 합성수지 연구실 연구원
1978~1982	University Karlsruhe 물리화학연구소 연구원
1982~2005	KIST 고분자공정연구실장, 고분자복합재료 연구실장 고분자하이브리드연구센터장, 고분자연구부장
1995.04	우수논문상(과총)
1998.04	과학기술 국민훈장 석류장(대통령)
2006~2008	한밭대학 응용화학생물공학부 초빙교수
2009~현재	동양제강(주) 기술위원

수상내역 및 주요업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명예연구원 최철림 박사는 2006년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사업으로 선정(총괄 한양대 임승순교수:1단계 2006.11~2009.10, 2단계 2009.11~2011.10)되어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강도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산업용섬유 및 응용제품 개발” 과제에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원사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동양제강(주)의 기술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젤 방사”라는 특수기술의 상업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철림 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980년대 중후반 3년 동안 수행하였던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의 개발”의 경험과 고분자 재료 관련 전문지식을 동양제강에 전수하여 제조공정의 안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현재 동양제강에서는 파일롯 단계의 연구개발을 완수하고 상업화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산학연 협력의 측면에서 최철림 박사가 이룩한 업적은 (1) 국내 고분자공학자들의 모임인 SPE-Korea 창설과 (2) 고분자 재료 관련 KS 및 ISO 활동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최철림 박사의 주도하에 1994년 창설된 SPE-Korea는 고분자공학자와 고분자 가공업체의 만남의 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국내 고분자 가공업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25년에 걸쳐 종사하고 있는 플라스틱기술위원회(기술표준원)는 플라스틱 관련 KS를 제,개정하는 국내 최상위 위원회이다. 플라스틱 산업계와 직결되어 있는 350종 이상의 한국표준(KS)이 이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이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ISO/TC61(플라스틱)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1년부터 TC61의 열가소성수지 전문위원회(SC9)의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내 고분자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